

물의 꽃 '폭포'

송필용전, 다음달 3일까지 갤러리 리체



'폭포는 언제나 곧다'

하얀 캔버스 위에 하얀 물줄기가 떨어져 내린다. 떨어진 물줄기는 이내 돌에 부딪혀 청색으로 변하고, 사방으로 튀기면서 자연과 만난다. 물줄기는 자연의 순환과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고 항상 일정하게 아래로 향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방울의 형상은 수만 가지다.

서양화가 송필용씨는 물이 만들어 내는 꽃 '폭포'를 이 같이 화폭에 담았다. 갤러리 리체는 6월3일까지 송필용씨를 초대해 '폭포는 언제나 곧다'전을 연다. 송씨는 폭포를 청화백자의 투명함으로 담아냈다. 청색과 백색의 조화로 담아낸 폭포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색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이미지들을 담아낸다. 환각에 빠지듯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송씨 작품의 특징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아닌 인간의 자각 너머에 존재하는 폭포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보다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그리기를 시도했다. 마치 수목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흥 출신인 송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문의 062-412-00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화 속을 걷다

박정희전,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세종갤러리



'행복한 동행'

동화 같은 풍경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은 신바람기만 하다. 작가는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자신만의 세계로 끌어들이 재해석했다. 파랑, 초록, 노랑, 분홍색 등의 색을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으로 배치해 넘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은 색을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선 조형 언어들로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을 새겨놓았다.

차가운 색채를 따뜻하게 그리는 서양화가 박정희씨가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시 중구 세종로 세종갤러리 1·2관에 초대돼 열여섯 번째 개인전을 연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모두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의 최근작들은 연두색과 핑크색이 더해지면서 한층 밝아졌다.

박씨는 대한민국 여성 미술 공모전 금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샌디에고 네바다 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2-3705-902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친 삶 치유와 사색의 심포



해와에서는 딱딱한 장소가 아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고, 토론할 수 있다.

문화가 흐르는 공간

3 '해와'

전남대 후문·무등산 자락에 동지 게스트하우스·갤러리·카페 등 갖춰 예술 통한 심리극·상담으로 치유 돕고 단계별 인문강좌 '해와자유대학' 운영



해와 2층 베란다에서 바라다본 건물 외관.

'해와문화예술공간'(이하 해와)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이다.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와 같이 '해처럼, 해와 함께, 또 햇볕을 비추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와는 2년 전 전남대에 문을 연 카페와 소극장을 갖춘 공간이 모태가 됐다. 해와공감기획단 김석재(광주양지병원 대표원장·파푸리성장학교 교장) 단장은 미술 치료사, 교수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병원 밖 치유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해와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무등산 자락인 동구 의재로 숙실마을에 하나의 공간을 더 오픈,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시작했다.

소극장과 카페가 있는 전남대 공간(다락 캠퍼스)에서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문화를 통해 심리극 치유를 해와하면 무등산 공간(옥담 캠퍼스)에는 갤러리, 카페, 상담치료실, 게스트하우스, 교육센터 등을 갖추고 상담과 문화, 만남, 예술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라는 '관계망' 속에서 치유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해와는 공간 자체도 매력적이다. 이름만큼이나 햇볕을 받으면 유난히 반짝이는 외관과 함께 통유리가 인상적인 건물 내부, 또 안쪽에서 공간들을 연결하는 계단들이 아가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와자유대학 지식강좌'는 다른 문화공간들과 차별화된 해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월~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미학강좌, 인문강좌, 역사강좌, 심리강좌, 문화강좌, 문학강좌 등 프로그램은 해와가 제시하는 하나의 대안적 프로그램이다. 바꾸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전남 대철학연구소 강사진들이 바깥적인 인문학을 목표로 진행한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열리고 있는 수많은 인문학 강좌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해주는 강좌였다면 해와에서 진행되는 강좌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강좌"라는 것이 해와의 설명이다. 때문에 모든 강좌들은 기초 과정과 통섭 과정으로 나뉘고, 강좌 자체도 20여 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듣는 강좌가 아닌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거기에서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이 같은 강좌는 '읽, 씬, 삶'이라는 해와의 궁극적 목표와 연결돼 있다. 씬을 통해 씬을 쉬고, 편하게 씬을 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절실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강좌가 딱딱한 장소가 아닌 갤러리에서 진행되거나 세미나실이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해와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공간은 게스트 하우스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는 침대와 의자, 그림이 전부다. 하지만 투숙객들은 이 공간에서 그림을 보고 명상에 잠기며 치유를 얻어간다. 실제 게스트 하우스 입구에는 머물렀던 투숙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꽂혀 있다. 특히 게스트 하우스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그날 해와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는 중국 대표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전시가 번갈아 가며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관전으로 중국현대미술작가 송용홍 초대전 '미문(未聞)'이 열렸고, 오는 6월1일까지 중국지폐를 소재로 변질된 현대인의 문제를 다뤄온 왕치양 작가를 초대해 '희로애락'을 주제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박하선, 박수만씨 등 작가들이 이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해와는 최근에 광주시교육청, 파푸리 아동·청소년센터와 함께 광주 지역 초·중·고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두발발러우폭서기'를 진행하고 있다.

해와는 최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와공감기획단에서 한발더 나아가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정식 법인 형태의 (사)해와를 추진 중에 있다. 해와를 통해 사회를 교육이라는 의미로 '감성교육' 등을 통해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석재 단장은 "나눔은 보탬을 만들고, 보탬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해와를 돈이 되는 방식이 아닌 나누고 보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해와가 시민사회 영역에 진입해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또 해와와 같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33-9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봉곡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기간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일정		
5월 31일(토)출발 당일 기차여행 고수동굴/구인사/온달관광지	06:30 광주역 출발 11:00 단양역 도착 16:00 단양 고수동굴/구인사/온달 관광지 관광 22:50 단양역 출발 / 광주역 도착 성인 75,000원~ 경로 73,000원~ 소아 70,000원~	6월 13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산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22:00 광주역 출발 04:3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 누리마루/이기대 공원 13:30 자갈치시장 관광 22:30 부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성인(경로) 69,000원~ 소아 65,000원~	6월 20일(금)출발 무박2일 기차여행 부석사/선비촌/안동하회마을	23:50 광주역 출발 05:30 풍기역 도착 06:30 부석사/소수서원/선비촌/안동 하회마을 관광 21:30 풍기역 출발 / 광주역 도착 성인 77,000원~ 경로 75,000원~ 소아 74,000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정동진/울릉도/독도	1일째 01:00 광주역 출발 20:50 정동진의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일째 04:40 독도 관광 17:30 울릉도 육로 관광 A코스 3일째 08:00 울릉도 육로 관광 B코스/해안 산책로 관광 02: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320,000원~ 소아 290,000원~	7월 18일(금)출발 1박3일 기차여행 백담사/월정사/양매죽장 지역	1일째 01:00 광주역 출발 20:50 정동진의 자유관광 (일출, 모래시계공원) 2일째 09:00 백담사/통일전망대/화진포의 성 관광 3일째 03:00 월정사/상원사/양매죽장/주문진어시장 관광 19:00 강릉역 출발/광주역 도착 성인 220,000원~ 소아 200,000원~